

취학전 아동의 색선호와 인성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Personality and Color Preference of Preschool Children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주생활학과
조 교 수 이 연 숙
연구조교 이 의 준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아동학과
부 교 수 정 문 자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Yonsei University

Assistant Prof.; **Yeun Sook Lee**

Research Assistant; **Eui Joon Lee**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Life,

Yonsei University

Associated Prof.; **Moon Ja Chung**

<목 차>	
I. 서론 및 문헌배경	IV. 결 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결과 및 논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color preference, thereby to suggest a personality profile on the basis of colors selected for children's preference.

Materials used to determine the degree of color preference were 24 color papers which were developed and described in a previous research by Lee & Lee.

The Instrument used to determine children's personality was Burks' Behavior Rating Scales-Preschool and Kindergarten Edition.

Subjects were 70 3-, 4- and 5-year old children attending the Y Chil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using mainly F-test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Results showed that among 24 colors used, white(11 aspects), violet(9 aspects), sapphire(5 aspects), sky blue, blue, green yellow(3 aspects respectively), pink(2 aspects), green, red, gold, purple, van dyke brown, blue green, silver(1 aspect respectively)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personality. Judging from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어린이 생활지도 연구원의 수혜연구중 일부임.

this results, white and violet seemed to be most predictive colors to personality. Personality aspects significantly related to specific colors were discussed and a profile of personality based on color preference were developed.

I. 서론 및 문헌배경

인간의 특성을 아는 단서가 되는 색선호는 색채 심리학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으며 아직도 미개척된 과제로 남아 있다. 인성과 색선호 사이의 관련성 존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명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색과 어떠한 인성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색을 좋아하기에 색채선호 테스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특정한 색에 대한 선호를 표현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타고난 성격특성(Birren, 1978, Luckiesh, 1938), 정서, 기질 그리고 그외의 인성들을 나타내 준다(Luckiesh, 1938). 인성이란 한 개인이 환경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으로 적응코자 하는 심리적 생리적인 체계로서 개체내의 역동적인 기구이며, 성격, 기질, 개성은 인성의 일면을 형성하는 하위개념이다(Allport, 1962). 그러나 이 어휘간의 개념을 엄밀히 구별하기는 어려워서 서로 자주 통용되고 있다(정수자, 1979).

색은 우리 주위의 가장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언어이다(Luckiesh, 1938). 이것은 많은 사람을 분류하고 판단하는 실용적인 지름길이다(Birren, 1978). 유럽의 한 대규모 통신학교가 교과목 신청자 모두에게 색선호테스트를 사용하여 그 테스트 결과가 암시해주는 적성이 높은 교과목과 직업을 택하도록 조언을 해주는데 도움이 되었다 한다(Lüscher, 1969).

이러한 이유 등으로 색에 대해 또 그것에 대한 인간의 한 반응으로서 선호에 대한 발견을 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색선호를 파악할 때 많은 색이 복합된 도구들을 사용할 경우는 특별한 색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미적 판단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한가지 색이나 두가지 색에 중점을 두는 것

이 좋다. 단일색인 경우 특히 색들이 심리적 생리적 욕구에서 선택되어지는 것이 명확하여 어떤 색을 선호하고 싫어하는 것은 명확한 인성특성을 의미하며 또 현재의 마음상태와 균형상태를 나타내 준다(Lüscher, 1969).

어린이들은 선천적으로 색을 좋아하고 그것에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은 아주 의미가 있다(Birren, 1978). Alschuler와 Hatwick(1947)는 하나의 그림보다 색이 어린이의 정서적 생활특성과 그 정도를 알아내는 단서로서 더 큰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였다(Birren, 1978). 어린이들은 형태보다도 색에 대해 더 예민하여 기쁨을 쉽게 얻는다. 어린이들은 자라면서 혼란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색에 대한 반응은 덜 충동적이 되고 그리하여 색의 본질적인 호소력이 약화되어 버릴지 모른다(Birren, 1978). 그러므로 색선호는 성인들의 인성파악에 보다 어린이의 인성파악에 더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하겠다.

일반적인 색선호와 인성간의 관계와 어린이의 색선호와 인성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Jaensch(1930)는 적록색맹을 분류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따뜻한 색쪽으로 치우치는 색에 민감한 사람들과 차가운 색쪽으로 치우치는 색에 민감한 사람들로 분류할 수 있다 하였다(김화중, 1985). 이와 관련하여 선호색채의 일반적인 정서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따뜻한 색에 민감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특징지워지며 외계의 영향에 대해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러한 영향을 잘 받아들일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도 얼마만큼 쉽게 적응한다. 정서적으로는 따뜻한 마음, 예민한 감수성 및 강한 애정으로 특징지워진다. 차가운 색에 민감한 사람들은 외계에 대해 무관심하고 초연한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지도 못한다. 정서적으로도 냉정하며 마음을 잘 터놓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따뜻한 색에 민감한 사람들은 외향적으로 통합된 유형의 사람들이고 차가운 색에 민감한 사람들은 내향적으로 통합된 유형의 사람들이고 차가운 색에 민감한 사람들은 내향적으로 통합된 유형의 사람들이다(김화중, 1985). 대체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외향적으로 통합된 사람들은 색채를 좋아하는 경향 그중에서도 따뜻한 색을 특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내향적으로 통합된 사람들은 차가운 색계통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몹시 좋아하지는 않는다(김화중, 1985, Birren, 1978).

Kagere(1949)는 그의 책 *Color and Personality* 에서 여러 대표적인 색들과 인성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빨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외향적이고 본능적인 수줍음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투쟁하는 사람이며 힘차고 충동적이며 용기있고 활동적이다. 또한 깊은 동정심도 있고 인간성 회복을 위해 애통해하며 인생이 스릴있는 사건으로 채워지길 원한다. 주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남에게 부러움을 받고 인생을 사랑한다. 말도 잘 하고 잘 웃고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준다. 혼자 있기를 싫어하며 설득력이 있으며 유머감각도 잘 발달시킬 수 있다. 노랑은 영리하고 이상주의적이며 승배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좋아한다. 녹색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잘 이해하는 능력이 있고 인내심이 있고 자유로움을 느끼고 마음이 선하고 부드러우며 친절하여 호감을 주며 마음이 깨끗하고 편견이 없으며 용감하지만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 선호된다. 파랑은 내성적이고 선천적으로 보수적이며, 판단력이 건전하며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에 의해 선호된다. 자주를 선호하는 사람은 비범하고 배타적이며 자기 자신에게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비한 존재이다. 마음이 탁월하고 보통 자기 자신에게 아주 만족한다. 예술적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좋아한다. 갈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실질적이고 믿음만 하며 일관성이 있고 경험에 의해서보다는 선천적으로 보수적이다. 충동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남들에게 변함없는 어떤 성질을 가졌다고 듣는 사람이다(Kagere, 1949).

Birren(1978)은 그의 책 *Color and Human*

Response 에서 몇가지 대표적인 색에 대해 선호와 싫어함을 인성과 관련시켜 언급하고 있다. 주황에 대한 선호는 생명력, 열망과 활동성을 나타내 주며 이 색은 충동적인 색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몹시 피로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색으로 선택될지 모른다. 주황을 싫어하는 사람은 활력이 없거나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 경향이 있다. 밝은 노랑을 좋아하는 사람은 발명을 좋아하는 지적인 사람이며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배우는 것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인생에 실망했거나 고집과 의심이 많은 징조를 보인다. 청록의 선호는 자연적이며 일관성이 있고 영구성과 인내를 나타내며 안전성이 요구되고 변화가 억제되고 있는 징조를 보인다. 청록을 싫어하는 사람은 갈등이 많고 부와 지위를 잃어버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다. 진한 청색은 성취력이 있고 일관성 질서성 평화적 마음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어디로 탈피하거나 이상한 행위를 하고 싶어할 수 있다. 보라에 대한 선호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마력적 상태나 황홀함을 나타내어 이 색을 싫어함은 개인적인 직업적이건 가까운 관계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갈색은 안전과 보수성과 관련된 색으로, 언급하고 있는 8색중 종종 가장 싫어하게 되는 색이다. 싫어하는 경우는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싫어함을 나타낸다. 회색은 갈색과 검정과 더불어 가장 싫어하는 색 방향에서 언급되는 색이다. 주관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외향적이지도 내향적이지도 긴장도 후식도 아니다. 이 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율타리안에서만 살고 싶어하고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며, 싫어하는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거나 고독을 싫어하며 세상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검정은 좋아하는 색으로 선택되는 현상은 드물다. 그러나 좋아할 경우 운명에 대해 저항을 하는 사람이며 싫어하는 경우는 어떤 것도 포기할 의사가 없는 상태의 사람이다. 요약하면 근육형인 사람들은 빨강을 좋아하고 두뇌형인 사람들은 노랑을 좋아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파랑을 좋아하며 사교적인 사람들은 주황을 좋아하며 예술가들은 대체로 자주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근거가 있다 하겠

다(Birren, 1978).

Birren(1982)은 그의 저서 *Light, Color, and Environment* 에서 색에 대한 인간의 반응 특히 선호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그 요약은 다음과 같다. 빨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외부세계로 통합하려는 개성이 크며 활발하며 지나치게 회상적이지 않고 신중하기 보다는 충동에 의해 보다 많은 지배를 받는다. 노랑은 지적인 경향을 띤 사람에게 의해 선호된다. 녹색은 지적이고 사회성이 강하며 말 잘하는 수다스런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의해 선호되며 그들은 스트레스하에서 대체로 격리를 열망하지 않고 반면에 사람들 사이의 교제를 원한다. 청록은 자기도취자로서 매우 까다로우며 예민한 사람이 좋아한다. 파랑은 내부통합적 경향이 강하고 신중한 사람들이 선호하며 이들은 스트레스하에서 환경으로부터 비극적인 도주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Birren, 1978).

Marston(1927)은 다음과 같이 이론적 정리를 하였다. 파랑은 지배력이 강함을 나타내는 색으로 남성이 주로 좋아하고, 노랑은 순종을 나타내는 색으로 주로 여성과, 다른 종족보다 비교적 순종적인 중국인이 좋아한다. 녹색은 추종적인 사람에게 빨강은 자극적인 사람에게 선호된다.

어린이들에게서 색선호를 이용하여 그들의 내재적 감정을 파악해 낼 수가 있다(Birren, 1978). 어린이들에게 선택되는 색들의 의미가 비교적 객관화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들은 빨강, 노랑, 주황, 핑크와 같은 따뜻하고 밝은 색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빨강은 생활을 억제하지 않고 사랑하는 어린이가 선호하며 강하게 선호될 경우에는 적대감이나 애정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 준다. 주황은 사교적인 색으로 선호하는 어린이는 생활과 사회에 잘 적응한다. 노랑을 선호하는 어린이는 겁이 있고 어른의 보살핌을 무의식적으로 요구하는 어린이이다. 파랑, 녹색과 같은 한색을 좋아하는 어린이는 더 신중하고 덜 성급하다. 녹색을 좋아하는 어린이는 강하고 공공연하게 감정을 표현하는데에 상당한 부족감을 보인다. 파랑을 선호하는 어린이는 순응과 복종, 감정을 조정하고 억제하고자 하는 자질성이 강하다.

검정과 갈색, 회색을 선호하는 아이들은 내면적

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색들은 어린이들에게 좀처럼 선호되지 않는다. 검정이 강하게 선호된 경우 두려움과 불안, 근심이 있는 어린이들이다(Birren, 1978).

정서적 상태가 색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험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관련된 연구 중에는 색선호와 인성에 관한 것이 있다. Thomaschewski(1935)는 4살에서 16살에 이르는 70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색선호와 여러 인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이때 인성과파악은 선생님들의 관찰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를 보면 파랑, 검정, 보라는 차분함과, 흰색은 진지함과, 주황과 빨강은 사회성과 검정은 침울 함과, 주황은 애욕적임과, 초록과 보라는 감수성과, 진한 빨강은 건강, 생동감 즐거움과, 붉은기가 섞인 색 종류들은 의지약함과 비정상적임과, 밝은 파랑은 소심함, 신경과민성과 연관되어 있었다(Norman and Scott, 1978).

이 연구는 Norman 과 Scott(1978)에 의해 세가지 점에서 비평되었다. 첫째, 인성을 파악하는데 선생님들의 주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했다는 사실이고 둘째, 인성과파악에 사용한 어휘들의 의미가 중복되어 각 어휘마다 뚜렷한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셋째, 연령에 따라 색선호가 변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연령범위가 커서 대상이 동질이 아닌데 같이 묶어 인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대부분 색선호에 관한 연구들은 결과가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인성에 관한 연구는 어휘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사용하였는가 하는 연구방법론적 전지에서 미숙하다고 생각되어 왔기에(Norman and Scott, 1978) 보다 명확한 개념정의와 가지고 있는 인성검사를 이용해 색선호 특히 어린이의 색선호경향과 분석해 봄으로써 각색이 갖는 인성프로파일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취학전 아동의 색에 대한 선호정도 반응과 인성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보다 체계적인 인성프로파일을 제시해 보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II.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색선호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과 인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동의 색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개발. 즉 도구로 사용되는 색의 선정 및 선정된 색을 이용한 색에 대한 선호정도 반응파악 등에 관해서는 '색지와 색가구를 통해 본 취학전 아동의 색채선호경향에 관한 연구'^{a)}에서 서술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인성파악을 위해 사용된 방법에 관해서만 서술한다.

〈도구〉 인성파악을 위해 Burks' Behavior Rating Scales-Preschool & Kindergarten Edition 을 양장애(1983)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나 부모가 아동(3,4세 유치원아)을 관찰하여 아동에게서 보이는 문제행동을 측정하게 한 것이다. 평정자는 18개의 하위범주로 나뉘어져 있는 105문항에서 명시된 각 행동이 아동에게서 보여지는 정도를 5점척도에 근거해서 평정하게 된다. 18개의 하위범주는 자기비난, 불안, 음침함, 의존성, 자아력, 신체적인 힘, 협응력, 지능, 주의력, 충동의 통제력, 현실적응능력, 정제감, 피로움, 분노통제력, 자기박해, 공격성, 저항의식과 사회적 동조감인데 각 범주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문항수의 범위는 최고 8개에서 최저 5개였다.

연구의 배경에서 Norman과 Scott(1952)은 Thomaschewski(1935)의 연구를 비평하면서 연구대상이었던 4세에서 16세에 이르는 아동의 인성파악을 위해 교사들로 하여금 평정하게 하여 타당도를 낮추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취학전 아동으로, 아동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파악 혹은 표현하게 하는 방법은 불가능하므로 부득이하게 교사용을 쓸 수 밖에 없었으며 오히려 이 교사가 평정하게 되는 경우가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객관적 행동측정도구로 더 좋을 수 있는 것이다.

〈방법〉 Burks' 검사는 교사에 의해 평정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교사는 평정된 어린이를 잘 알아야

한다. 즉 평가되는 개인과 친숙해야 하고 피험자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 타당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와의 접촉기간은 최소 6주에서 2달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인성검사시기를 해당유아원 개원 후 3개월~4개월 사이에 즉, 5월에서 6월 중에 각 아동의 담당교사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자료처리〉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SPSS 를 사용하였는데 연구대상아동의 인성프로파일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수와 백분율, 평균치를 이용하였으며 각 색에 대한 선호정도(좋다, 그저그렇다, 싫다)에 따른 각 인성점수가 유의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F-test 를 하였으며, 유의적으로 나타난 그룹간의 평균치를 비교하기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를 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 임한 대상은 Y대학교 부설, 유치원에 다니는 70명의 아동으로 남아 34명(48.6%), 여아 36명(51.4%)이었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3세 13명(18.5%), 4세 28명(40.1%), 5세 29명(41.4%)이었다.

각 색의 선호정도에 따른 인성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호정도를 나타내는 좋다, 그저그렇다, 싫다를 가상독립변인으로 취급^{b)}하여 그룹으로 나누어 F-test 를 하고, F-test 에 유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그룹간의 차이를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Duncan 의 Multiple Range Test 를 하였다. 그 결과를 간단히 집약시켜 도표화한 것이 <그림 1>이다. 사각형태로 나타난 것은 F-test 의 결과 유의적으로 나타난 것들이고, 각 색의 중앙선으로서 사각을 가로지르고 있는 선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 유의적인 그룹간은 구별해 주고 있는 것이다. 24색 각각 선호정도와 인성의 18부분과의 유의성 검증에서 선호정도와 인성간의 유의적인 결과가 나온 색은 하늘색, 녹색, 빨강, 금색, 보라, 자주, 고동색, 핑크, 파랑, 청

b) 인성점수와 선호정도를 중간척도로 간주하여 Pearson 의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쓸 수 있으나 자료분석과정에서 자료특성이 선호정도의 3점척도상에 linear 관계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많아 F-test 로 하였다.

a) 대한가정학회지 제23권 3호에 게재됨.

	하늘색	녹색	빨강	금색	보라	자주
지나친 자기비난					[싫.그.좋]**	
지나친 불안					[싫.그.좋]**	
지나친 위축						a
지나친 의존성					[싫.좋]*	
자아능력 약화						
체력부진						
협응력 부족						
지적능력 부족					[그, 좋.싫]*	
주의집중력의 부족	[그.싫]*					
충동조절력의 부족	[좋.그.싫]*			[그.싫]*	[그.좋]*	
현실감 부족	[그.좋.싫]*					
정체감 결여					[그.싫]*	
고통의 표현이 부족						
분노조절 능력의 부족			[좋.싫]*		a	
피해의식					[싫.좋]*	
지나친 공격성					[싫.그.좋]**	
지나친 저항의식						
사회적 동조감 부족			[싫.그.좋]*			

좋 : 좋다는 반응을 보인 그룹

그 :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보인 그룹

싫 : 싫다는 반응을 보인 그룹

[|]

(중앙선의 오른쪽 사각안에 있는 그룹이 왼쪽보다 열거되어 있는 인성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1] 각 색에 대한 선호정도에

록, 은색, 감청, 흰색, 연두 등의 14가지색이었다.

각 색별로 나타난 인성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늘색의 경우는 14가지 인성부분 중 주의집중력, 충동조절력, 현실감 등에 관한 인성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즉 주의집중력은 하늘색을 싫어하는 아동이 그저 그렇다라는 반응을 보인 아동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조절력은 하늘색을 싫어하는 아동이 좋거나 그저그렇다라는 반응을 보인 아동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감의 경우는 하늘색을 싫어하는 아동이 좋거나 그저그렇다고 반응한 아동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의 경우는 사회적 동조감에 관한 인성만이 유의적으로 나타나 녹색에 대해 좋거나 그저그렇다라는 반응을 보인 아동은 싫어하는 아동보다 사회적 동조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에

대해 Kargere(1949)는 인내심이 많고 남의 문제에 대한 이해력도 많으며 친절하고 판단에 편견이 없는 사람의 선호색이라 하였는데 이와 어느정도 관련되는 사회적 동조감과는 유의적으로 나왔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서 선호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동조감이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빨강의 경우는 분노조절능력에 관한 인성만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며 빨강을 싫어하는 아동이 좋아하는 아동보다 분노조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빨강에 대해 Kargere(1949)와 Birren(1978)은 충동적인 사람이 선호하는 색으로 언급하였는데 연구결과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분노조절력에 있어 빨강을 좋다고 한 아동이 싫다고 한 아동보다 분노조절력이 더 강함을 보여주었고 충동조절력과도 유의적인 관계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금색의 경우는 충동조절력에 관한 인성만이 유

고동색	핑크	파랑	청록	은색	감청	흰색	연두
						[그.싫]* [그.싫]*	
					[그.싫]*	[그.싫.중]*** [싫.그.중]** [그.중]*	
		[그.중.싫]** [그.싫]*				[그.중]* [싫.그.중]* [그.중.싫]*	
			[그.중]*		[그.싫]* [그.싫]*	[그.싫]*	
		[그.싫]*		[중.그.싫]		[그.싫]* [그.중]** [그.중]***	
	[중.그.싫] [중.그.중]*				[그.싫]*	[그.싫]* [그.중.싫]***	
[중.그]*					[그.싫]**	[그.중.싫]***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 .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a: F-test에서는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나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서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난 경우.

다른 인성 프로파일

의적인 차이를 보여 금색을 싫어하는 아동이 그저 그렇다는 아동보다 충동조절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라의 경우는 자기비난, 불안, 의존성, 지적능력, 충동조절력, 정제감, 분노조절능력, 피해의식 공격성 등의 9가지 인성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자기비난과 불안은 보라에 대해 그저 그렇다와 좋다고 반응한 아동이 싫다는 아동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성과 피해의식은 보라를 좋아하는 아동이 싫어하는 아동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능력은 보라를 싫어하는 아동이 좋다고 그저 그렇다는 아동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조절력은 보라를 좋아하는 아동이 그저 그렇다는 아동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제감의 경우는 보라를 싫어하는 아동이 그저 그렇다는 아동보다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조절능력은 F-test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Duncan

의 Multiple Range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은 보라를 좋다는 아동이 그저 그렇다와 싫다는 아동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의 경우는 위축에 관한 인성만이 F-test에서는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나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argere(1949)는 자주에 대해 비범하고 배타적인 사람의 선호색이라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저항의식과는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위축과는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동색의 경우는 저항능력에 관한 인성만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고동색에 대해 그저 그렇다고 반응한 아동이 좋아하는 아동보다 지나친 저항의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핑크의 경우는 피해의식과 공격성에 관한 인성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피해의식은 핑크에 대해 그저 그렇다와 싫다고 반응한 아동이 좋다

라는 아동보다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공격성은 핑크에 대해 싫다라는 반응을 보인 아동이 좋다고 그저그렇다라고 반응한 아동보다 지나치게 나타나고 있었다.

파랑의 경우는 협응력, 지적능력, 현실감에 관한 인성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즉 협응력은 하늘색을 싫어하는 아동이 좋다고 그저그렇다라고 반응한 아동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능력, 현실감은 파랑에 대해 그저그렇다라고 반응한 아동이 싫어하는 아동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랑의 경우 Kargere(1949)는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의 선호색이라 하였고, Birren(1978)은 성취력이 큰 사람에게 선호되며, 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어디론가 탈피하고 싶어하며 이상한 행위를 하고 싶어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되는 저항의식과 사회적 동조감, 정체감, 현실감 등의 경우 현실감과의 관계만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청록의 경우는 충동조절력에 관한 인성만이 유의적으로 나타나 청록을 좋아하는 아동이 그저그렇다라고 반응한 아동보다 충동조절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록에 대해 Birren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를 싫어한다고 하였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색이라 하였는데 이와 관련되는 불안과 주의집중력은 유의적인 관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은색의 경우는 고통의 표현에 관한 인성만이 유의적이었으며, 은색을 싫어하는 아동이 좋다고 그저그렇다라는 반응을 보인 아동보다 고통의 표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의 경우는 자아능력, 충동조절력, 현실감, 분노조절능력, 사회적 동조감 등에 관한 인성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자아능력, 충동조절력, 현실감, 분노조절능력, 사회적 동조감은 감청을 싫어하는 아동이 그저그렇다라는 반응을 보인 아동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흰색의 경우는 불안, 위축, 자아능력, 지적능력, 주의집중력, 충동조절력, 고통의 표현, 분노조절능력, 피해의식, 저항의식, 사회적 동조감 등의 11가지 인성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흰색을 싫어하는 아동이 그저그렇다라는 반응을 보인 아동보다 지나친 불안, 위축, 충동조절력의 부족, 고통의 표현부족, 지나친 저항의식 등을 나타냈다.

흰색을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아동이 그저그렇다라는 아동보다 자아능력이 약하고, 주의집중력이 부족하며, 사회적 동조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흰색을 좋아하는 아동이 그저그렇다라는 아동보다 지적능력과 분노조절능력이 부족하고 피해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두의 경우는 체력, 협응력, 지적능력 등에 관한 인성이 유의적이었다. 연두를 좋다는 아동이 싫다와 그저그렇다라고 반응한 아동보다 체력이 부진하고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두를 좋아하는 아동이 그저그렇다라는 아동보다 협응력이 부족하였다.

문헌고찰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각 색선호도와 인성간의 관련성을 언급할 때 논의를 하였으나 논의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성에 관련된 어휘의 사용이 너무 다양하고 함축적이며 정확히 정의내려지지 않아 주관적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 Burks' 인성검사 중 18가지 영역의 인성요인들이 서로 배타적,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었던 점이다. 셋째, 선호, 혐오색을 파악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어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오히려 비교관점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이 연구에서 Burks' 인성검사에 근거해 각 색에 대한 프로파일만을 설명하는 것이 더 명확한 결과제시가 되어 더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IV. 결 론

이상과 같은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하늘색은 주의집중력, 충동조절력, 현실감에 관한 인성과 관련있었으며, 하늘색을 싫어하는 아동은 주의집중력, 충동조절력, 현실감이 부족하였

다. 녹색은 사회적 동조감과 관련 있었으며, 녹색을 싫어하는 아동은 사회적 동조감이 풍부하였다. 빨강은 분노조절능력과 관계 있었으며, 빨강을 좋아하는 아동은 분노조절력이 높았다. 보라는 자기 비난, 불안, 의존성, 지적능력, 충동조절력, 정체감, 분노조절능력, 피해의식, 공격성 등에 관한 인성과 각각 관련이 있었으며, 보라를 좋아하는 아동은 의존성이 높고, 충동조절력이 부족하며, 공격성이 높고, 피해의식이 컸다. 반면 보라를 싫어하는 아동은 자기비난이 덜하고 불안해하는 정도가 낮으며,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정체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자주는 위축과 관련 있었다. 고통색은 저항의식과 관련 있었으며, 고통색을 좋아하는 아동은 저항의식이 적었다. 핑크는 피해의식과 공격성과 관련 있었으며, 핑크를 좋아하는 아동은 피해의식이 적었고, 싫어하는 아동은 공격성이 강하였다. 파랑은 협응력, 지적능력, 현실감과 관련 있었으며, 파랑을 싫어하는 아동은 협응력이 부족하고, 지적능력이 부족하며, 현실감이 부족하였다. 청록은 충동조절력과 관련 있었으며, 청록을 좋아하는 아동은 충동조절력이 부족하였다. 은색은 고통의 표현과 관련 있었으며, 은색을 싫어하는 아동이 고통표현능력이 부족하였다. 감청의 경우는 자아능력, 충동조절력, 현실감, 분노조절능력, 사회적 동조감 등의 인성에 대해 각각 관련 있었으며 감청을 싫어하는 아동이 자아능력, 충동조절력, 현실감, 분노조절능력, 사회적 동조감이 부족하였다. 또한 흰색은 불안, 위축, 자아능력, 지적능력, 주의집중력, 충동조절력, 고통의 표현, 분노조절능력, 피해의식, 저항의식, 사회적 동조감과 관련 있게 나타났다. 흰색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어느 쪽으로든 표현하는 아동은 대개 자아능력이 약하고, 주의집중력이 부족하며, 사회적 동조감이 부족하였다. 흰색을 좋아하는 아동은 지적능력과 분노조절능력이 부족하고 피해의식이 강하였다. 싫어하는 아동은 불안감과 위축감이 크고, 충동조절력, 고통의 표현능력이 부족하며, 지나친 저항의식을 갖고 있었다. 연두는 체력, 협응력, 지적 능력 등에 관한 인성과 관련 있었으며, 연두를 좋아하는 아동은 체력이 부진하고 협응력이 부족하며 지적능력도 부족하였다.

18부분의 인성에 예민한 결과를 보인 색은 흰색이 11가지로 가장 많았으며, 보라 9가지, 감청 5가지, 하늘색, 파랑, 연두 각각 3가지, 핑크 2가지, 녹색, 빨강, 금색, 자주, 고통색, 청록, 은색 등이 각각 1가지씩이었다. 즉 이상과 같은 색들은 24색중 비유의적 결과를 보인 황토색, 팔죽색, 벽돌색, 노랑, 국방색, 회색, 주황, 검정, 남색, 살색보다 인성과 색선호와의 관련성을 논하는데 언급되어 질 수 있게 나타났다. 특히 흰색, 보라, 감청, 하늘색, 파랑, 연두 등은 인성을 예측하게 해주는 좋은 변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호색이 인성과악에 중요하며 편리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선호색과 인성간의 관련성을 Burks' 인성검사를 이용하여 프로파일은 그려보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선호색 파악을 위한 측정방법 등의 개발여부, Burks' 인성검사의 인성과악방법 등의 이용여부에 따라 당분간 이 제통의 연구결과가 크게 일치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70명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대상자수가 적었으나 더 좋은 도구들의 발견과 발견된 도구들을 일관성 있게 그 대상범위 및 수를 넓혀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연구결과와는 반드시 체계적인 일반이론을 형성하게 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김화중, 「색채심리」(파버비렌 저 번역), 동국출판사, 1985.
- 양장애, “부친유무와 아동의 부적응 행동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3.
- 이연숙, 이의준, “색지와 색가구를 통해본 취학전 아동의 색채선호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3권 3호, 1985, 9.
- 정수자, “아동의 인성발달에 관한 비교 연구—기독교가정과 비기독교 가정아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17권 4호, 1979.
- Allport, G.W., *The Individual His Religion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The Macmillian Co., 1956 cited by 정수자,

- “아동의 인성발달에 관한 비교 연구—기독교 가정과 비기독교 가정 아동 아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17권 4호. 1979.
- Alschuler, Rose H. and La Berta Weiss Hatwick, *Painting and Personality*, Michigan: University of Chicago, 1947 cited by Birren, F., *Color and Human Respons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 1978.
- Birren, Faber, *Color and Human Respons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 1978.
- Birren, Faber, *Light, Color, and Environment*,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 1982.
- Halse, Albert Q., *The Use of Color in Interiors*, McGraw-Hill Book Co., 1978, 27~37.
- Jaensch, E.R., *Eidetic Imagery*,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and Co., 1930 cited by 김화중(역), 「색채심리」, 동국출판사, 1985.
- Kargere, Audrey, *Color and Personality*,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49.
- Katz, S.E. and F.S. Breed, “The Color Preference of Childre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 1922, 256~66.
- Lewis, Michael and Linda Michalson, *Children Emotions and Moods*, New York: Plenum Press, 1983.
- Luckiesh, M., “Taste and Sensibility,” *Color and Colors*, New York: D. Van Nostrand Co., Inc. 1938.
- Lüscher, M., *The Lüscher Color Test*, New York: Pocket Book, 1969.
- Marston, W.M., “Primary colors and Primary Emotion”, *Psyche*, 1927, 30, 4~33 cited by Norman, R.D. and W.A. Scott, “Color and Affect: A Review and Semantic Evaluation,”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952, 46, 185~223.
- Norman, Ralph D. and Willian A. Scott, “Color and Affect: A Review and Semantic Evaluation,”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952, 46, 185~223.
- Thomaschewski, E. Die Farbe in der Experimentellen Charkterforschung, I. Jugendle 1935, 5, 50~53 cited by Norman, R.D. and W.A. Scott, “Color and Affect: A Review and Semantic Evaluation,”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952, 46, 185~223.